

무독성 친환경에너지 'DME' 2012년 상용화 추진 실증·시범 보급사업 착수 ... '시범공장'은 내년 5월 준공예정

□ 산업자원부는 금년 9월부터 새로운 에너지원인 DME(디메틸에테르 : Dimethyl Ether)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DME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해하여 제조한 화합물로서, 독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며, 용도가 다양한 청정에너지

- DME는 6기압, -25°C 상태에서 액화되어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며, LPG와 물성이 유사하고 대량 생산시 가격이 LPG보다 약 20%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LPG혼합 사용시 LPG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세탄가가 높아 디젤엔진의 디젤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환경성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우수하여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

* DME는 연소시 디젤보다 CO2 발생량이 적고 프레온(CFC)과 달리 오존층에 무해하며 황성분이 없고 NOx도 디젤보다 약 26% 적게 배출

□ 그간 가스공사는 산업자원부 예산 지원으로 '97년부터 연구에 착수, '03년 독자적으로 DME 제조공정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0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데모 플랜트(10톤/일 생산규모)를 건설중이다.

○ 금번 실증사업을 위해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LP 가스공업협회, 석유품질관리원 등 기관으로 T/F를 구성하고, DME 관련 품질기준 등 제반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09년부터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DME 생산규모, DME 적용기술 개발 및 보급성과 등의 추이를 보아가며 점차 DME 활용 분야 및 공급량을 확대하되, 우선 LPG와 DME 혼합 사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해외 중·소규모 가스전을 개발, 현지에서 DME를 생산하여 2012년부터 연간 약 100만톤 정도를 국내에 공급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 안철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금번 실증·보급사업이 새로운 에너지원인 DME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DME 보급을 통해 에너지 다변화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업자원 사이버 홍보관 24일 오픈

산업관·재미관 등 6개관 구성 ... 관람동선 안내도 실시

산업자원 관련 자료와 정보에 한층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무역·에너지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근하

게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위주의 산업자원정보 종합사이트 '산업자원 사이버홍보관(<http://cyber.mocie.go.kr>)'을 8월 24일 오픈,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홍보관에서는 산업자원 관련 자료와 정보를 동영상·텍스트·UCC·플래시게임·가상체험관(VR)·카툰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사이버홍보관은 산업·무역·에너지 분야로 크게 나뉘며,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정책과 비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UCC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주요 내용으로, △산업관은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과 현안, 미래 첨단산업, 기술표준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무역·투자관은 외국인투자자와 무역 전략, 전략물자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원·에너지관은 해외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기술개발 등 에너지·자원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또, 통계관을 마련,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등과 연계, 산업·무역·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참여관도 운영, '국민참여형 정보공유마당'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외에 우주관·헬기전시관 등을 둘러보고 가상비행체험·거북선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재미관도 운영된다.

또, 효율적 정보 검색과 활용을 위해 멀티미디어 자료 검색 시스템과 '사용자 관람안내시스템(CCS, Cyber Curating System)'을 도입,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 사용자 관람안내 시스템 : 산업자원 사이버홍보관의 관람 동선을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전시 컨셉트별로 관람 코스를 세분화. 최적의 관람코스는 물론 관람시간까지 예측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형 관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예) 바이오·나노산업 체험 코스 : 산업의 역사 → 산업분야 핵심정책 → 바이오·나노시장을 장악하라 → 미래에서 만나본 바이오·나노 → 십자군 전쟁 때 이미 나노기술이 쓰였다? ☞ 총 17분 관람 코스

이번에 구축된 사이버홍보관은 종합적·체계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체험 위주의 사이버 공간으로 꾸며져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 국민 참여형 교육 콘텐츠로의 역할도 기대된다.

산자부 이상근 정보화기획팀장은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그간 어렵고 멀게만 생각했던 산자부 정책과 사업 내용을 산업자원 사이버홍보관을 통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이버홍보관의 각종 콘텐츠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산자부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테마전시관도 구성, 에너지복지·중소기업지원·청년창업 프로그램 등을 9월중 선보일 계획이다.

한전-포스코 연료전지사업 협력 MOU 체결

- 연료전지 사업 본격적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추진 -
- 발전용 연료전지 제조, 판매, 시장확대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추진 -



□ 한국전력(사장 이원걸)이 포스코(회장 이구택)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과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8월 20일 11:30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미래 청정 에너지인 발전용 연료전지의 제조 및 판매, 연구개발, 시장 확대 및 정보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서(MOU)'를 체결하였다.

□ 업무협력의 첫 단계로, 국내 최초 250kW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전 자회사 남동발전이 포스코가 공급하는 2,400kW규모의 연료전지를 2008년까지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양 사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연료전지를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번에 합의한 제조, 판매사업 및 연구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협력할 계획이다.

□ 이원걸 사장은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를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료전지를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래 수소에너지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는 향후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하여 발전용 연료전지의 국내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한전과의 업무 협력으로 향후 수요확대는 물론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MOU를 통해, 양 사는 발전용 연료전지 연구개발 및 시장확대 측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여 기술개발의 가속화와 연료전지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해외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 연료전지는 석탄석유 등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설비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연료전지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전, 리비아 장기전력수요 예측 컨설팅 수주

- 리비아전력청과 60만불 규모의 계약 체결 -

- 한국전력(사장 이원걸)은 9월 1일 리비아 트리폴리(Tripoli)에서 리비아전력청과(GECOL) 60만불 규모의 "리비아 장기 전력수요 예측 및 전원개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 컨설팅은 10개월에 걸쳐 리비아 전력망에 대한 장기수요조사와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입찰에는 이탈리아의 CESI, 벨기에의 트렉타벨, 호주의 WP등 선진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한전의 입찰가격이 경쟁사에 비해 높았음에도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 이번 계약 체결로 선진국간의 각축이 진행 중인 리비아에서 선진회사들을 경쟁하여 계약자로 선정됨으로써 한전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한전은 본 사업 수행시 국내중소기업체와의 동반진출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한전은 리비아에서 2004년부터 송배전, 통신분야 용역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6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764만불 규모의 배전분야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원자력 안전' 은 '사명이자 생명'

- 과학기술부, 제13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 -

'원자력!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이지만,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제13회 원자력안전의 날」기념식이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한 원자력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6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탑산업훈장에 송명재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본부장, 산업포장에 송진섭 현대건설(주) 상무 등 총 50명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김우식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 구축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최전선에서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산업계

종사자, 안전규제 전문가, 연구자들에게 '원자력 안전'은 모두의 '사명이자 생명'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안전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원자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 주기를 당부했다.

제 13회 원자력 안전의 날'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의 날 전후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서울·부산 등 전국 17개 도시에서 원자력안전 가두캠페인(9.3~9.8)을 벌였으며, "미래의 원자력안전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원자력안전포럼이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개최(9.11, 원자력안전기술원) 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원자력시설 개방, 포스터 및 표어공모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원자력관련 기관은 자체적으로 기념식과 안전 결의대회를 가졌다.

동서발전, 기업 미래상 담은 신비전 발표

- 글로벌 리더로서의 도약 의지와 기업가치 증진 방안 담아 -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정태호)가 지난 9월 3일 삼성동 본사에서 "최고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신비전을 발표하고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결의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비전은 변화된 글로벌 경영환경과 내부 구성원의 향상된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생산성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로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술혁신과 환경친화경영으로 세계 발전산업을 이끌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체계로는 ▲창조정신 ▲혁신지향 ▲환경친화 ▲윤리준수 ▲인간존중을 설정하여 업무수행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서 동서발전 정태호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새로운 비전 제시는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비전 설정을 계기로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회사를 '최고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사장은 지난 4월 취임한 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목표를 모색해 왔다.

신비전 발표와 관련하여 동서발전 관계자는 "신비전은 경영의 효율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비전을 설정한 만큼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공유가치를 일치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